

# 쌀 대신 논콩...재배면적 2년째 증가

### 콩 재배면적 최대 7만3009ha 지난해 대비 7.9% 증가...발콩은 감소 논콩의 경우 쌀 대체 작물로 권장 직불제 도입...콩 가격 평년과 비슷

논콩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어나 2년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시기 발콩 재배면적은 출하가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감소하면서, 올해 국산 콩 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의 '농업관측 2024년 7월호 콩'에 따르면 2024년산 국산 콩 재배면적은 7만1947~7만3009ha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6만7671ha)와 평년(5만8690ha)에 걸려 각각 6.3~7.9%, 22.6~24.4% 증가한 규모로, 발콩 재배면적은 감소했지만 논콩 재배면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결과다.

논콩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대체작물로 재배를 권장하면서 재배면적이 2년째 증가하고 있다. 올해 논콩 재배면적은 2만4344~2만4779ha로, 최대치를 기준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35.3%, 114.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논콩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의 논콩 재배 권장과 더불어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전략작물직불제의 영향인 것으로 KREI는 분석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공급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들을 대상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논 활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5.5%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금 대상에 두류 전체 품목이 추가됐고, 지급 단가가 2배 오른 점도 논콩 재배면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에 앞서 지급대상에 논콩을 비롯해 쌀, 녹두, 완두, 잡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시켰고,

하계에 두류를 재배할 경우 지급단가를 1ha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점에 서다. 반면, 같은 기간 발콩 재배면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콩 재배면적은 4만7603~4만8230ha로, 전년(4만9357ha)보다 2.3~3.6%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KREI는 올해 출하가 가격하락으로 인해 발콩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발콩 재배면적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콩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11~1월)부터 꾸준히 보험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산 콩은 별다른 수급 불안 또는 공급량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콩 가격은 지난 28일 기준 1kg당 5550원으로, 전년 11월 5507원보다 0.78% 증가했고, 지난 1월 5460원에 견줘서는 0.85% 감소하는 등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 정부 수매량이 3만2545 t으로 전년(1만4649 t)에 견줘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정부의 수매·배출계획에 따라 향후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 '농사만사'

### 결과 속이 다른 수박 다 이유가 있다

#### 잘 자리기 위한 변신... '변질자' 상징 아쉬워

결과 속이 다른 과일은 많지만, 대표주자는 역시 수박이다. 겉은 초록이고 속이 빨간 것이 유독 강렬한 대비를 이뤄 그렇게 불리게 됐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정 치권에서 수박을 겉과 속이 다른 이 즉 '변질자'를 상징하는 과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농부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7~8월인 제철인 수박은 쌍떡잎식물 박목 박과의 덩굴성 한해살이풀로, 열매가 대개 사람 머리보다 크게 덩굴에 맺힌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맛을 많이 흘린 여름에 섭취하기에 좋다. 당분 함량은 수박 100g당 당분 6.2g인데 단맛이 강한 데 비해 당분 함량은 적은 편이다.

그런데 수박은 왜 겉과 속이 다를까. 답은 식물이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이다. 수박 껍질은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광합성에 필요한 엽록소가 많아서 초록빛을 띠게 된다. 엽록소의 경우에는 바로 붉은색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보색인 초록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수박의 줄무늬는 수박 껍질에 있는 비타민과 칼륨 등이 미네랄과 경쟁하면서 생긴 문신과 같은 것인데 12줄, 15줄, 17줄 등으로 일정하지 않지만, 줄의 숫자와 모양에 따라 수박의 영양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 수 있어서 줄무늬가 많고 선명한 줄무늬를 가진 수박일수록 맛이 좋다고 한다. 수박을 고를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반면 수박 속이 빨간 이유는 리코펜(Lycopene)이라는 붉은 과일에서 발견되는 색소로 수박이 어릴 때는 속살이 하얗지만, 점차 자라면서 리코펜이 많아져 빨갱게 변한 것이다. 수박의 껍질과 내부의 구성 성분 차이 때문에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인데 이 리코펜 때문에 붉은빛을 띤다. 리코펜은 또 다른 붉은 과일인 토마토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토마토를 붉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성분이 바로 이것이다.

내친김에 수박이 변질자라는 별칭으로 불려서는 안되는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더 접근해 보자. 박과인 수박은 하얀색이나 노란색일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수박은 원래의 특성을 살리고 변화를 주기 위해 다양성을 선택해 육중에 성공한 '하이브리드' (hybrid·동물이나 식물 따위의 잡종, 혼종, 이종)의 대표주자다. 수박을 재배하려면 수박씨를 바로 밭에 심지 않는다. 수박 모종은 박이나 호박의 뿌리에 줄기를 접목해 만든다. 그래야 병에 강해지고, 더 튼튼하게 자란다. 강렬한 한여름의 햇볕 밑에서 박의 뿌리가 빨아들인 수분을 수박의 줄기로 이동시켜, 더 크고 단 수박이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순수성'을 고집했을 때보다 다른 종자를 하나로 합쳤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것인데, 이게 바로 수박의 진실이다. 변질이 아닌 발전을 위한 선택인 셈이다.

사람의 진솔한 모습을 확인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고르기는 역시 어려운 문제다. 농산물품질관리사로 표준규격을 토대로 등급을 판정하는 걸 배운다지만, 수박의 속은 정말 알 수 없기에 실수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최근 한 유통업체가 수박을 인공지능(AI)으로 숙성·당도·갈라짐 등을 사전에 판별해 판매하는 전략을 펼쳐 시선을 끌고 있다. 기존에는 어떤 수박이 달고 맛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AI를 활용해 이 같은 시행착오를 줄였다는 것이다. 비파괴 당도 선별기에 AI를 접목해 숙성 정도, 내부 갈라짐, 당도 등 수박 속 상태까지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지름 50cm도 안 되는 수박의 속 상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AI를 들이대는 세상인데, 열 길 물속 보다 알기 어렵다는 사람의 속을 알기는 오죽하겠는가.

/bigkim@

## aT, 수입쌀 국산쌀 둔갑 부정유통 방지 합동교육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달 28일 서울시 양재동 화훼사업센터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합동교육'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전국 aT 지역본부 수입쌀 판매 및 보관 담당자와 대한양곡유통협회, 한국양곡유통협회 소속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국제 쌀 시장 동향과 수입쌀 판매 현황 ▲판매관리대상 작성방법 ▲수입쌀 공매입 참여의 개정 내용 ▲관련법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 기준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규정 등을 각 담당 기관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T 서울경기지역본부 수입쌀 판매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서울·경기지역 공매등록업체 190개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문의사항에 대



TRQ 수입쌀 판매 담당자 간담회 및 부정유통 방지교육

한 의문을 해결함과 동시에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시켜 부정유통하는 행위는 국내 쌀 시장을 교란

하고, 국내 농가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aT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점검

### 농관원 전남지원, 9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30일 "오는 9월 15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점검대상은 올해 공익직불금

을 신청한 광주·전남지역 22만여 농가로, 각 농가는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공익직불금의 총액이 10% 감액되며, 같은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된다.

방도혁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지역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공익직불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준수사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남재철 서울대 특임교수, 기후변화와 농업 특강

###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30일 "최근 본부 대회의실에서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를 초청해, '기후변화와 농업'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장마철을 앞두고 기후 전문가 초청을 통해 기후위기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특강에 참여한 직원 70여명의 역할 제고를 위

해 마련됐다. 특강을 진행한 남 교수는 올해 '6번째 대별종 시그널, 식량전쟁'이라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관련 도서를 발간했고, 제12대 기상청장을 지낸 국내 최고 수준의 식량기후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 특강에서 남 교수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시대 도래에 따른 경제적 흐름과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농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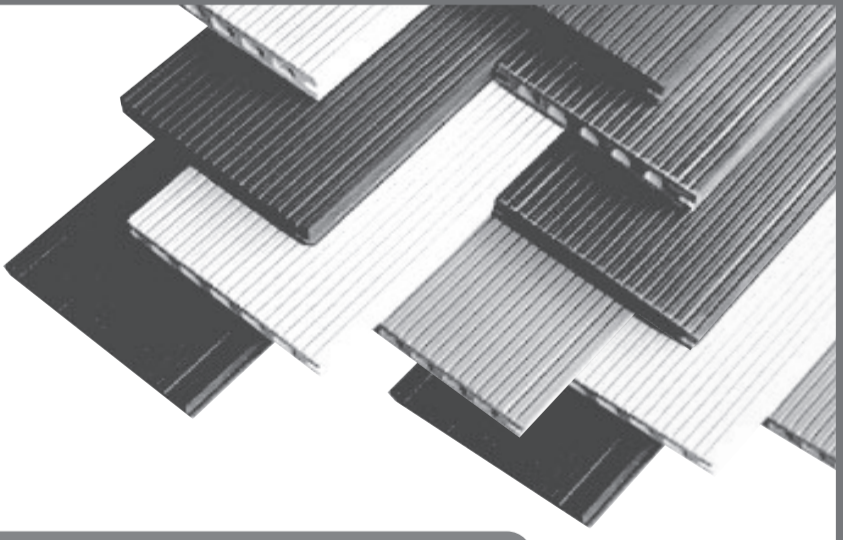
#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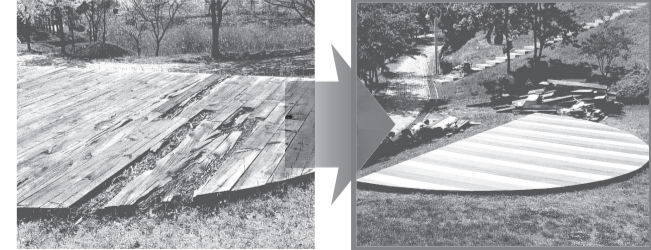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